

2021년 월간 해양기상정보

1월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

발표일: 2021년 1월 4일

해양기상정보

- 해상특성(최근 5년간('16~'20년) 1월)
 - 12월 상순에 동해와 제주도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높았음. 남해와 서해 먼바다, 동해중부 앞바다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그 밖의 해상에서 파고 낮았음
 - 중순에 동해와 서해남부, 제주도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높았음. 남해와 서해중부 먼바다, 동해중부와 제주도 앞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그 밖의 해상에서 파고 낮았음
 - 하순에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파고가 매우 높았음. 그 외 서해중부를 제외한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높았으며, 서해중부 먼바다, 동해와 제주도 앞바다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 ※ 유의파고 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 풍랑특보일 수(최근 5년간('16~'20년) 1월)
 - 10.4일(상순 3.4일 / 중순 2.9일 / 하순 4.1일)로 전월(9.8일)보다 0.6일 많음
- 해수면온도('20년 12월, '21년 1월)
 - 12월 실황: 서해(7.8~ 13.3℃) / 남해(13.6~16.8℃) / 동해(14.0~17.8℃)
 - 1월 예측: 서해(0.0~ 9.0℃) / 남해(7.0~16.0℃) / 동해(11.0~15.0℃)
- 조석정보(고극조위, '21년 1월)
 - 인천: 31일(874cm) / 완도: 14일(380cm) / 포항: 1~2일(26cm)

해양안전정보

- 해양선박 사고(최근 5년간('15~'19년))
 - 전체 15,993척 중 1월에 발생한 선박사고는 1,043척(6.5%)으로 연평균 208.6척의 사고가 발생
 - ☞ 1월은 추운날씨로 난방기구 등 화기 사용량이 늘어 화재위험이 증가하며, 날씨가 건조해 화재·폭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큰 시기로, 화재 발생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어업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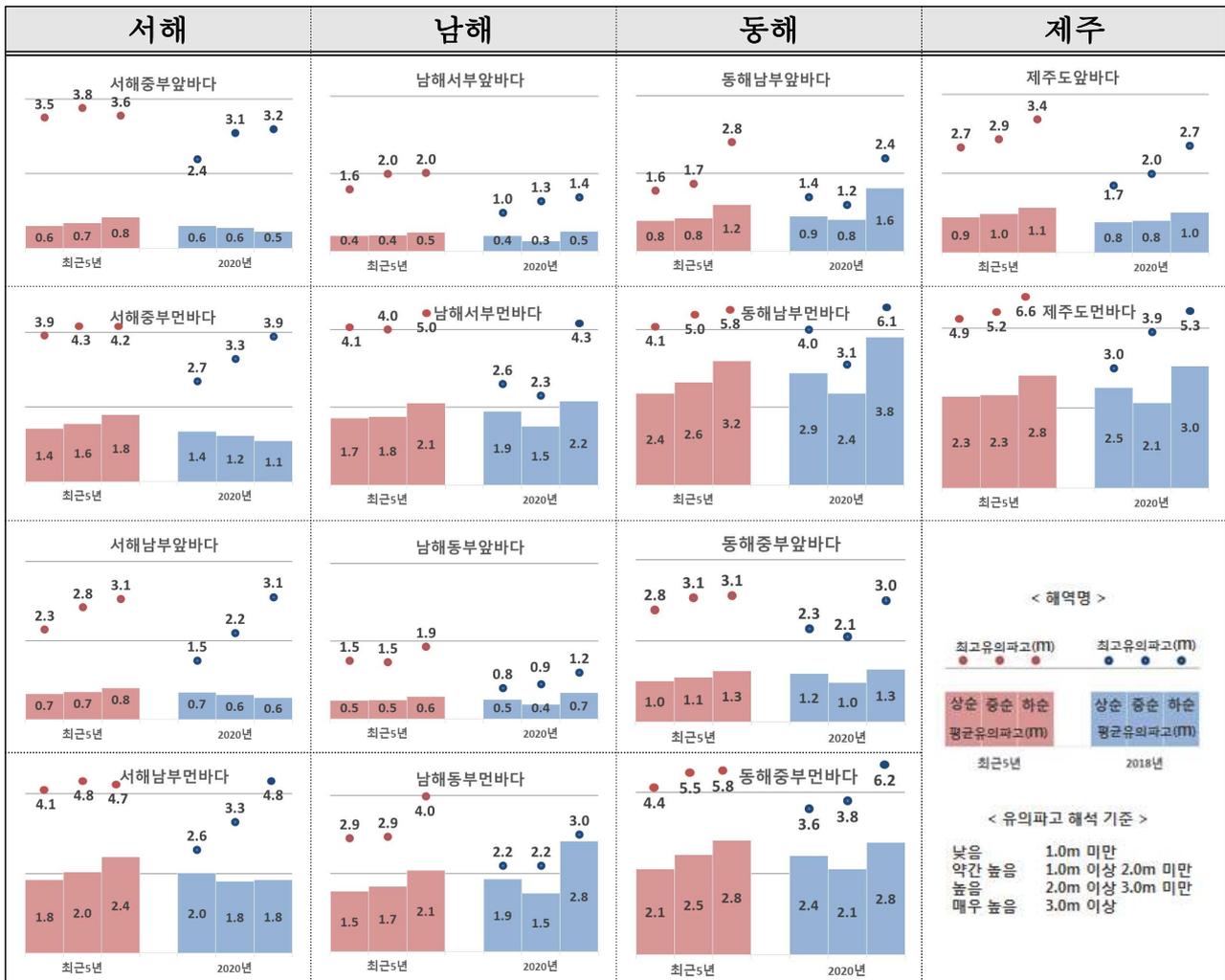
- 1월 어황 전망
 - 갈치, 참조기, 전갱이는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 고등어와 멸치는 평년수준, 살오징어는 평년비 부진으로 전망됨

자료협조: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1년 2월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는 2021년 2월 1일에 발표됩니다.

해양기상정보

■ 최근 5년간('16~'20년) 및 지난해('20년) 1월 유의파고(평균, 최고)



< 최근 5년간('16~'20년) 및 지난해('20년) 1월 순별 유의파고(평균, 최고) >

해역	먼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덕적도, 외연도, 인천*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천수만*, 안면도*
서해남부	칠발도, 부안*	신안, 진도, 옥도, 영광, 군산, 맹골수도, 대치마도*, 비안도*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두미도, 장안, 해금강,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동해중부	울릉도, 동해, 독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삼척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죽변, 구룡포, 후포, 간절곶*, 월포*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참고] 통계 지점: 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
 *지점은 신규 통계 추가 지점임

○ 최근 5년간('16~'20년) 1월 해역별 평균 유의파고

전 해상	1.1m(상순 0.9m / 중순 1.0m / 하순 1.2m)로 전월(1.0m)보다 0.1m 높음	
	앞바다	먼바다
서 해	0.7m (전월과 비슷)	1.8m (전월보다 0.1m 낮음)
남 해	0.5m (전월과 비슷)	1.8m (전월보다 0.1m 높음)
동 해	1.0m (전월보다 0.1m 높음)	2.6m (전월보다 0.2m 높음)
제주도	1.0m (전월보다 0.1m 높음)	2.5m (전월보다 0.1m 높음)

<순별 평균 유의파고>

- 1월 상순에 동해와 제주도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높았으며, 남해와 서해 먼바다, 동해중부 앞바다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고 그 밖의 해상에서 파고 낮았음
- 중순에 동해, 서해남부, 제주도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높았고, 남해와 서해중부 먼바다, 동해중부와 제주도 앞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그 밖의 해상은 낮았음
- 하순에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파고가 매우 높았으며, 그 외 서해중부를 제외한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높았고, 서해중부 먼바다, 동해와 제주도 앞바다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앞바다			먼바다 (단위: m)		
	상순	중순	하순	상순	중순	하순
서 해	0.6	0.7	0.8	1.6	1.8	2.1
남 해	0.4	0.4	0.5	1.6	1.7	2.1
동 해	0.9	1.0	1.2	2.2	2.5	3.0
제주도	0.7	0.7	0.9	2.1	2.0	2.5

※ 파고 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 최근 5년간('16~'20년) 1월 해역별 최고 유의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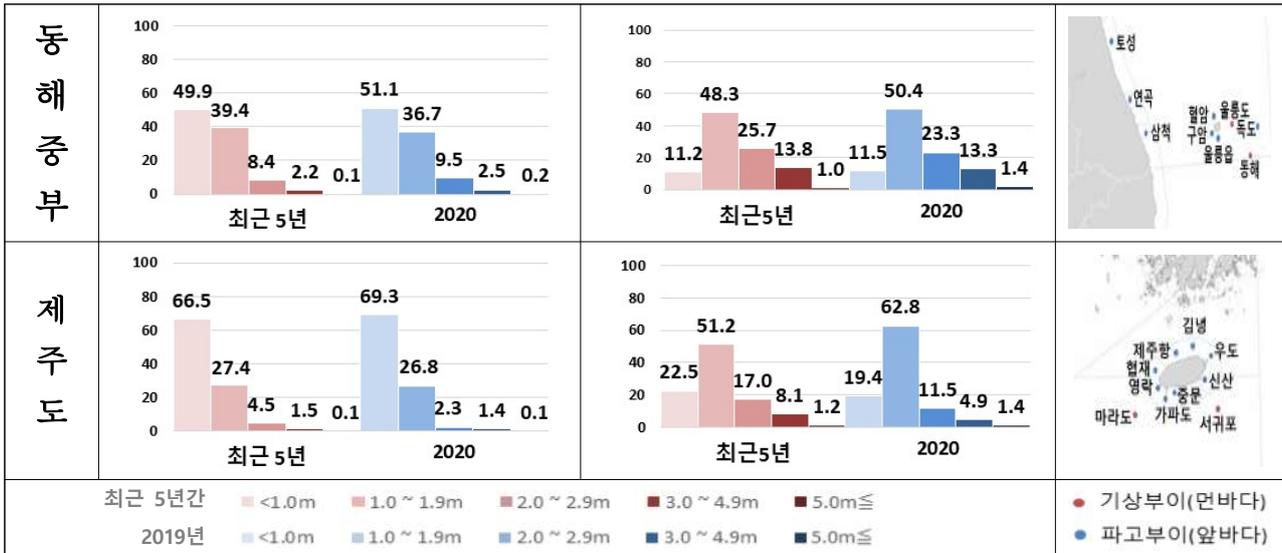
- 서 해: 앞바다 3.8m / 먼바다 4.8m
- 남 해: 앞바다 2.0m / 먼바다 5.0m
- 동 해: 앞바다 3.1m / 먼바다 5.8m
- 제주도: 앞바다 3.4m / 먼바다 6.6m

○ 관측 이래 1월 지점별 기상부이 유의파고(일 평균, 일 최고) 극값 순위(단위:m)

해역	지점	1위		2위			3위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서 해	칠발도	'97.1.1.	4.4 (6.2)	부안	'16.1.19.	4.2 (5.1)	칠발도	'20.1.8.	3.9 (4.9)
남 해	거제도	'20.1.27.	4.9 (7.0)	추자도	'16.1.24.	4.3 (5.3)	거제도	'20.1.28.	3.8 (5.6)
동 해	포항	'11.1.1.	5.1 (7.4)	울릉도	'16.1.20.	5.0 (7.1)	울진	'16.1.20.	4.9 (6.1)
제주도	서귀포	'20.1.27.	5.4 (6.6)	마라도	'16.1.24.	5.2 (7.2)	마라도	'15.1.1.	4.4 (5.8)

■ 최근 5년간('16~'20년) 및 지난해('20년) 1월 유의파고 분포

전 해상				단위(%)	
앞바다		먼바다		지점	
해역별					
	앞바다		먼바다		지점
서해중부					
서해남부					
남해서부					
남해동부					
동해남부					



○ 최근 5년간('16~'20년) 및 지난해('20년) 1월 전해상 유의파고 분포

- 최근 5년 (앞바다) 1m미만 74.5%, 2m이상 4.8%
(먼바다) 1m미만 36.3%, 2m이상 20.1%
- 지난해 (앞바다) 1m미만 79.4%, 2m이상 4.3%
(먼바다) 1m미만 38.4%, 2m이상 16.2%

○ 최근 5년간('16~'20년) 1월 해역별 유의파고 분포

- 서해: (앞바다) 1m미만 81.4%, 2m이상 3.5% (먼바다) 1m미만 53.8%, 2m이상 11.6%
- 남해: (앞바다) 1m미만 94.4%, 2m이상 0.5% (먼바다) 1m미만 48.2%, 2m이상 9.6%
- 동해: (앞바다) 1m미만 52.8%, 2m이상 9.6% (먼바다) 1m미만 13.0%, 2m이상 35.9%
- 제주도: (앞바다) 1m미만 66.5%, 2m이상 6.1% (먼바다) 1m미만 22.5%, 2m이상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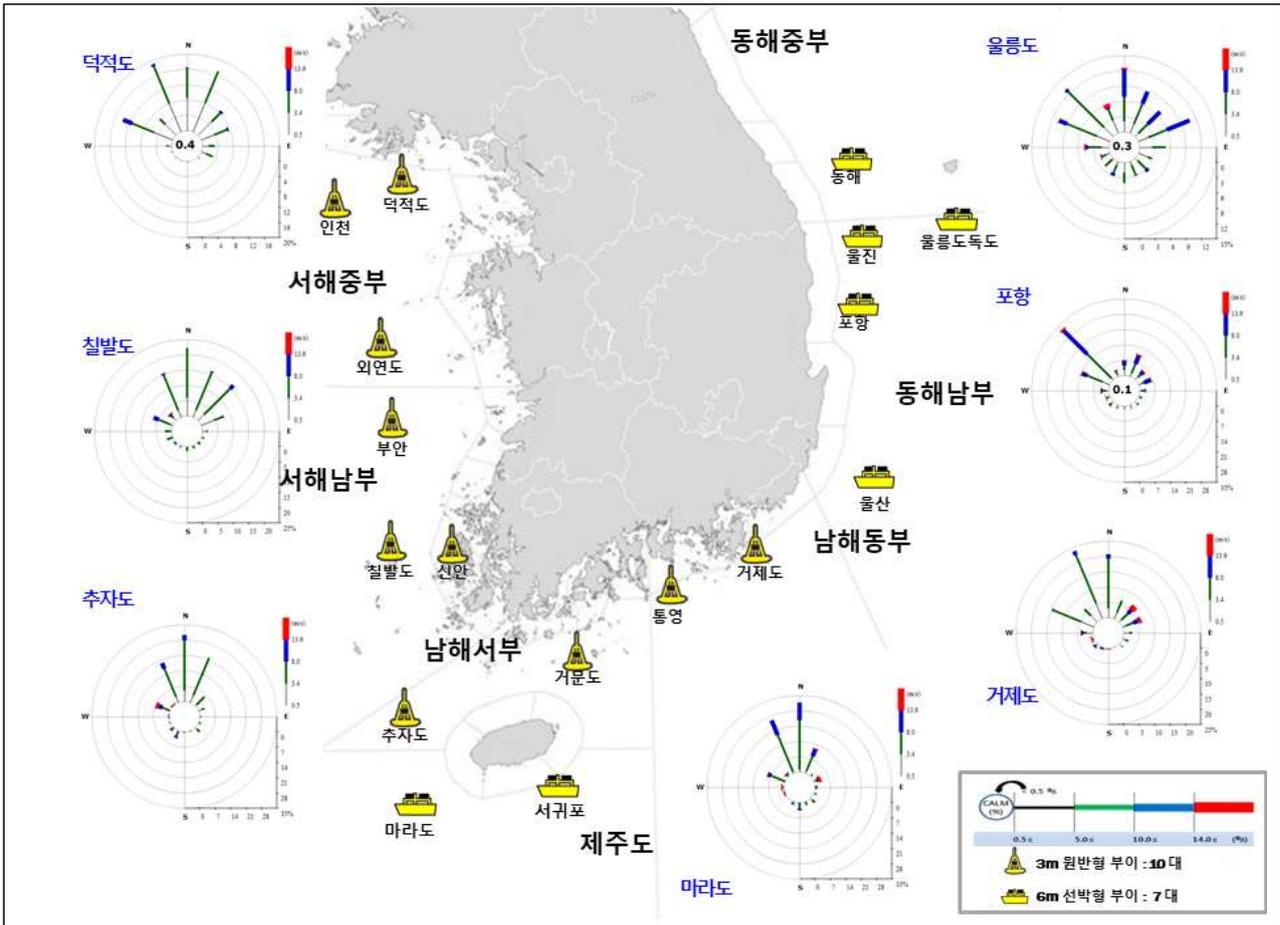
○ 최근 5년간('16~'20년) 1월 유의파고 분포 최대 해역

- 최근 5년: (1m미만) 남해서부앞바다(97.6%) / (2.0m이상) 동해중부 먼바다(40.5%)
- 지난해: (1m미만) 남해서부앞바다(94.3%) / (2.0m이상) 동해중부 먼바다(38.1%)

해역	먼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덕적도, 외연도, 인천*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천수만*, 안면도*, 장봉도
서해남부	칠발도, 부안*	진도, 옥도, 영광, 군산, 신안, 맹골수도, 대치마도*, 비안도*, 자은, 낙월, 변산, 조도, 위도, 불무도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 나로도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두미도, 장안, 해금강,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남해, 연화도, 사랑도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삼척, 울릉서부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죽변, 구룡포, 후포, 간절곶*, 월포*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신산, 영락

[참고] *지점은 최근 5년 통계 추가지점이며, _지점은 지난해('20년) 통계 추가지점임

■ 지난해('20년) 1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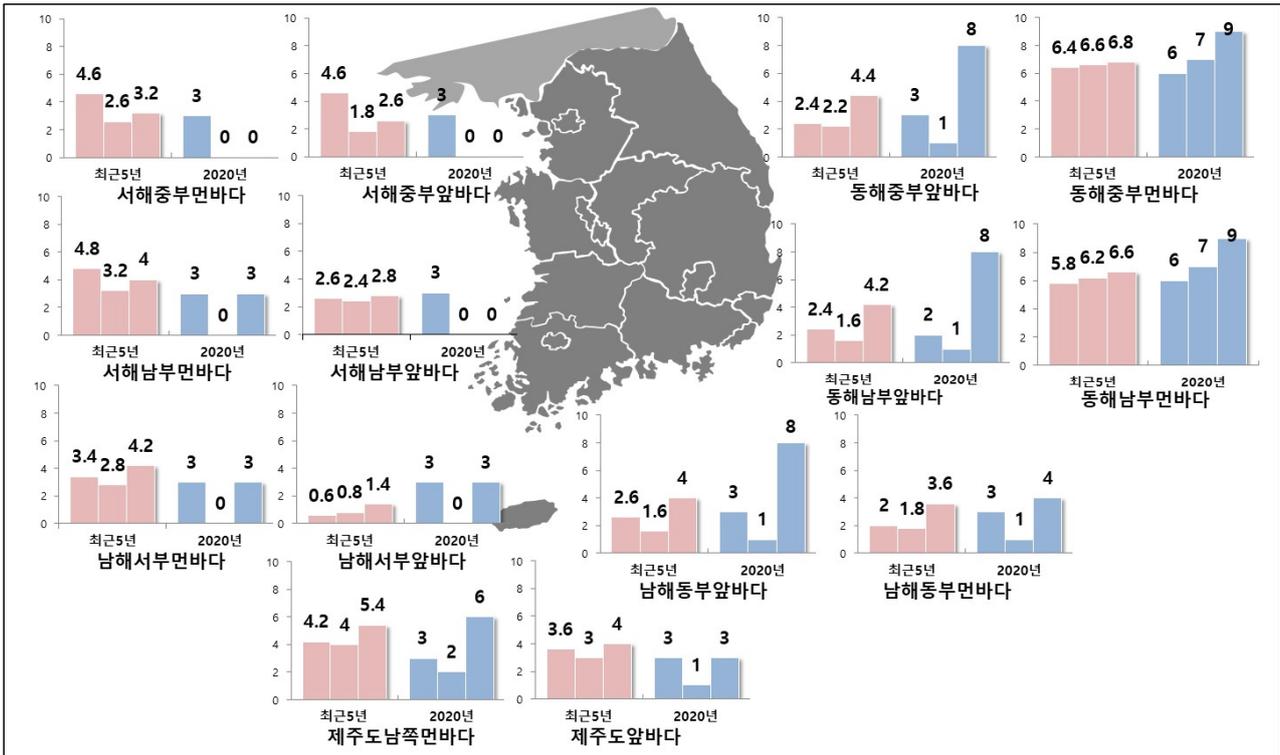
< '20년 1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바람장미 >

○ 지난해('20년) 1월의 해역별 풍속 계급별 분포

해역	주풍계	풍속(m/s), 분포(%)					관측지점
		Calm	0.5~4.9	5.0~9.9	10.0~13.9	14.0≤	
서해중부	W~NE	0.2	37.4	57.1	4.3	0.9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	NW~NE	0.0	28.1	67.2	4.5	0.1	칠발도, 부안, 신안
남해서부	NW~NE	0.0	18.3	69.3	9.2	3.2	추자도, 거문도
남해동부	W~N	0.0	29.3	57.5	8.6	4.7	통영, 거제도
동해중부	NW~E	0.3	28.2	51.3	18.9	1.5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NW	0.3	28.3	46.7	21.0	3.7	울진, 포항, 울산
제주도남쪽	NW~N	0.1	8.8	58.9	27.9	4.4	마라도, 서귀포
전 해상		0.1	25.5	58.3	13.5	2.6	

- 주풍계: 동해남부에서 북동풍, 그 밖의 해상에서 북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음
- 전 해상 풍속: 5.0m/s 미만 25.6% / 5.0 ~ 9.9m/s 58.3% / 10.0m/s 이상 16.1%
- 풍속 분포 최다 해역
 - 5.0m/s 미만: 서해중부(37.7%)
 - 10.0m/s 이상: 제주도남쪽(32.3%)

■ 최근 5년간('16~'20년) 및 지난해('20년) 1월 풍랑특보 일수



<최근 5년간('16~'20년) 및 '20년 1월 풍랑특보일 수(상순, 중순, 하순) >

○ 1월 풍랑특보 발표일 수

- 최근 5년: 10.4일, 전월(9.8일)보다 0.6일 많음
- 지난해: 9.5일, 전월(10.1일)보다 0.6일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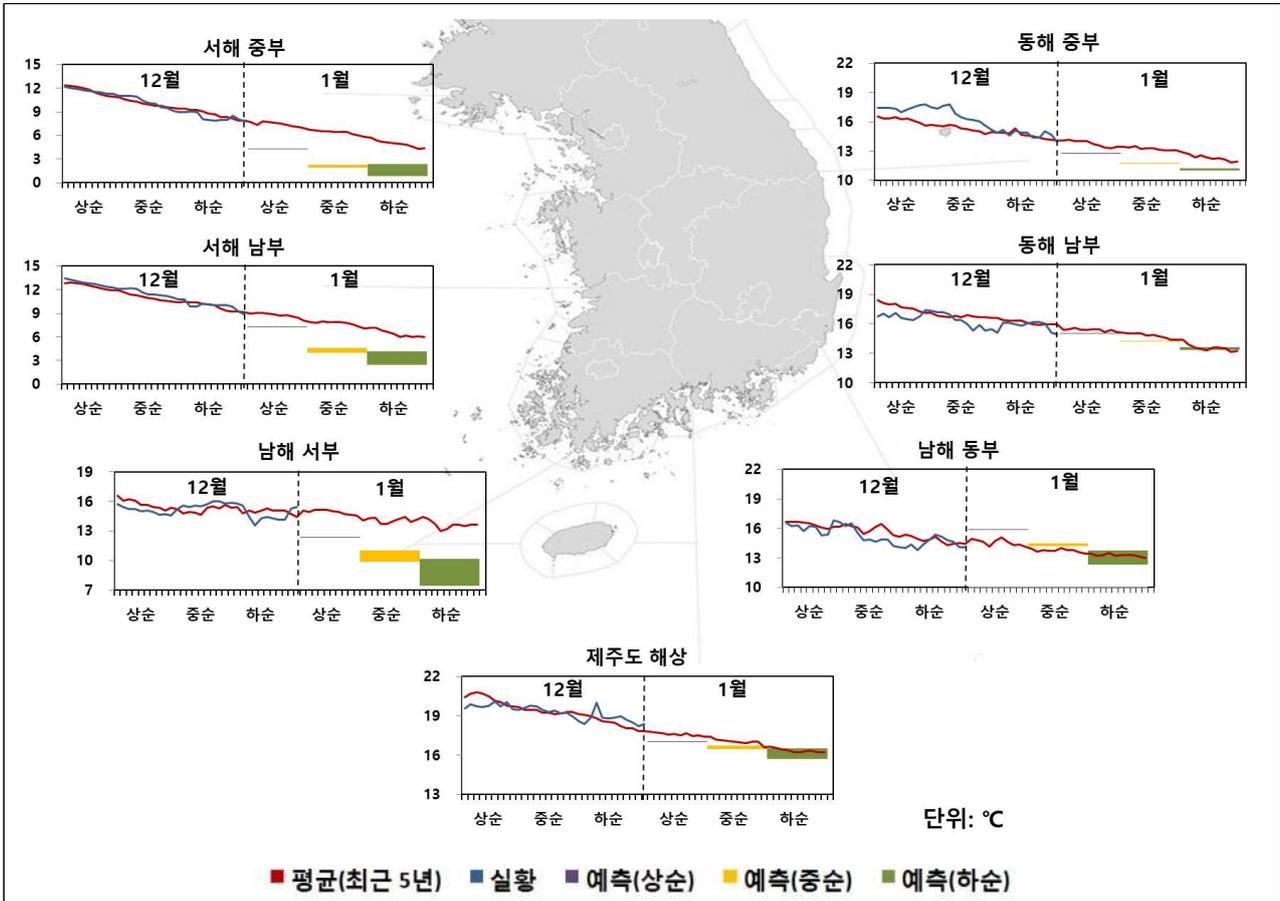
○ 1월 순별 풍랑특보 발표일 수 비교

- 최근 5년: 상순 3.4일 / 중순 2.9일 / 하순 4.1일
- 지난해: 상순 3.4일 / 중순 1.5일 / 하순 4.6일

○ 1월 풍랑특보일 수 최다 / 최소 해역

- 최근 5년: 동해중부먼바다(34.2일) / 남해서부앞바다(6.0일)
- 지난해: 동해먼바다(22.0일) / 서해중부먼바다, 서해앞바다(1.0일)

■ 해수면온도 지난달(12월) 실황 및 1월 예측



< 해수면온도 20년 12월 관측값 및 21년 1월 예측 >

- ☞ 해수면온도는 해양기상부이에서 관측한 수온을 사용하였으며 '평균(최근 5년)'은 최근 5년간('16~'20년) 12월 관측값의 평균, '실황'은 지난달('20년 12월)의 관측값임
 - 관측지점: 서해중부(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칠발도, 부안*)
 - 남해서부(거문도, 추자도), 남해동부(거제도, 통영*), 제주도(마라도, 서귀포*)
 - 동해중부(동해, 울릉도), 동해남부(포항, 울산*, 울진*)
- ☞ 해수면온도 예측정보는 기후예측시스템에서 산출된 예측값을 사용하며,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 *지점은 신규 통계 추가지점임

○ 지난달 ('20년 12월) 해역별 해수면 온도 특성

해역	12월 해수면온도(℃) (최근 5년 평균 편차)		
	상순	중순	하순
서해중부	11.0 ~ 12.1 (-0.1)	8.9 ~ 11.0 (-0.2)	7.8 ~ 8.9 (-0.5)
서해남부	12.2 ~ 13.3 (+0.2)	9.9 ~ 12.2 (+0.3)	8.9 ~ 10.3 (0.0)
동해중부	17.0 ~ 17.8 (+1.3)	14.9 ~ 17.8 (+0.9)	14.0 ~ 15.1 (0.0)
동해남부	16.4 ~ 17.4 (-0.8)	15.1 ~ 17.2 (-0.7)	14.9 ~ 16.2 (-0.4)
남해서부	14.6 ~ 15.5 (-0.7)	15.4 ~ 16.0 (+0.5)	13.6 ~ 15.4 (-0.5)
남해동부	15.3 ~ 16.8 (-0.3)	14.0 ~ 16.6 (-1.1)	13.8 ~ 15.4 (-0.2)
제주도남쪽	19.5 ~ 20.1 (-0.5)	18.4 ~ 19.8 (-0.1)	18.2 ~ 20.0 (+0.4)

○ 최근 5년간('16~'20년) 1월 해수면온도 평균 및 '21년 1월 해역별 해수면온도 예측

(과거) 최근 5년간 1월 해수면온도 평균		(예측) '21년 1월 해수면온도	
관측지점	범위(℃)	해역	범위(℃)
덕적도, 외연도, 인천	4.3 ~ 8.1	서해중부	0 ~ 6
칠발도, 부안	6.0 ~ 9.2	서해남부	2 ~ 9
울릉도, 동해	11.9 ~ 14.2	동해중부	11 ~ 13
포항, 울산, 울진	13.2 ~ 15.6	동해남부	13 ~ 15
거문도, 추자도	13.0 ~ 15.2	남해서부	7 ~ 13
거제도, 통영	13.0 ~ 15.1	남해동부	12 ~ 16
마라도, 서귀포	16.2 ~ 17.8	제주도남쪽	16 ~ 17

조석 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1월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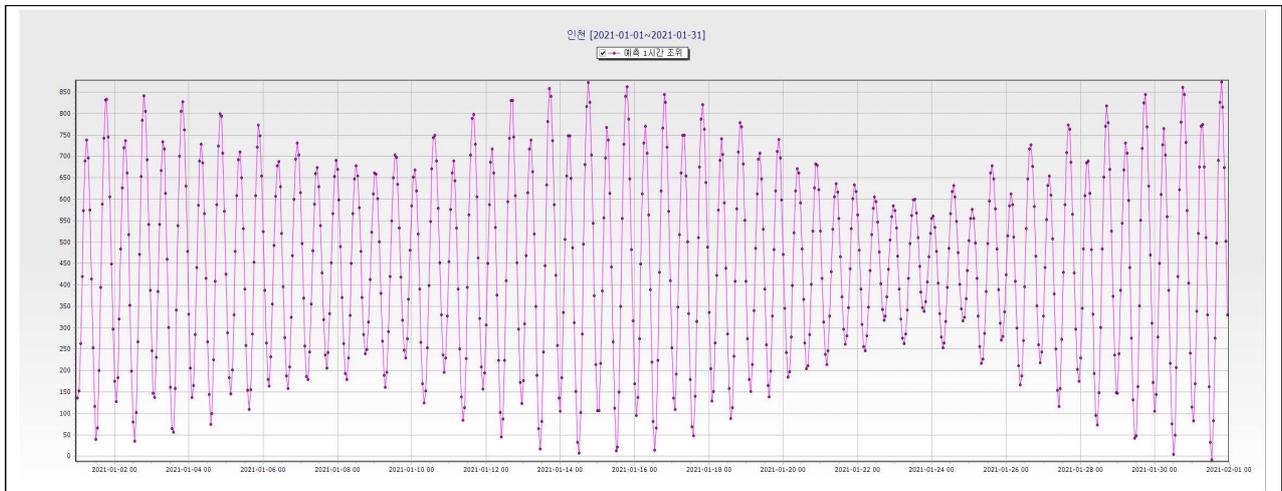
서해안의 인천은 1월 31일에 874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1월 14일에 380cm, 동해안의 포항은 1월 1~2일에 26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1월 지역별 고극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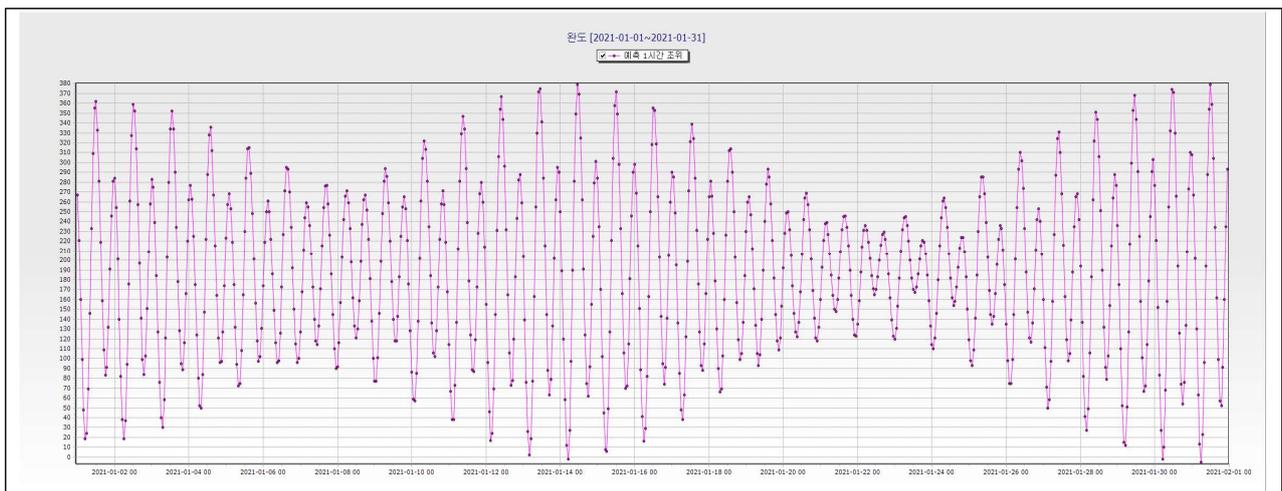
해역	지역	대조기(망 1.1)		대조기(삭 1.13)		대조기(망 1.29)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서해안	인천	18:30	844	17:19	864	17:41	848
	안흥	17:31	638	16:19	656	16:43	639
	군산	16:48	658	15:34	674	15:59	656
	목포	15:58	442	14:39	467	15:02	442
남해안	제주	12:21	264	11:14	274	11:30	262
	완도	11:41	364	10:34	378	10:51	368
	마산	10:25	181	09:23	188	09:38	183
	부산	09:54	118	08:50	117	09:06	115
동해안	포항	03:30	26	02:08	24	02:38	18
	속초	03:26	27	02:04	28	02:37	28
	울릉도	02:36	23	01:17	21	01:46	16

☞ 2021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와 ARS(1588-98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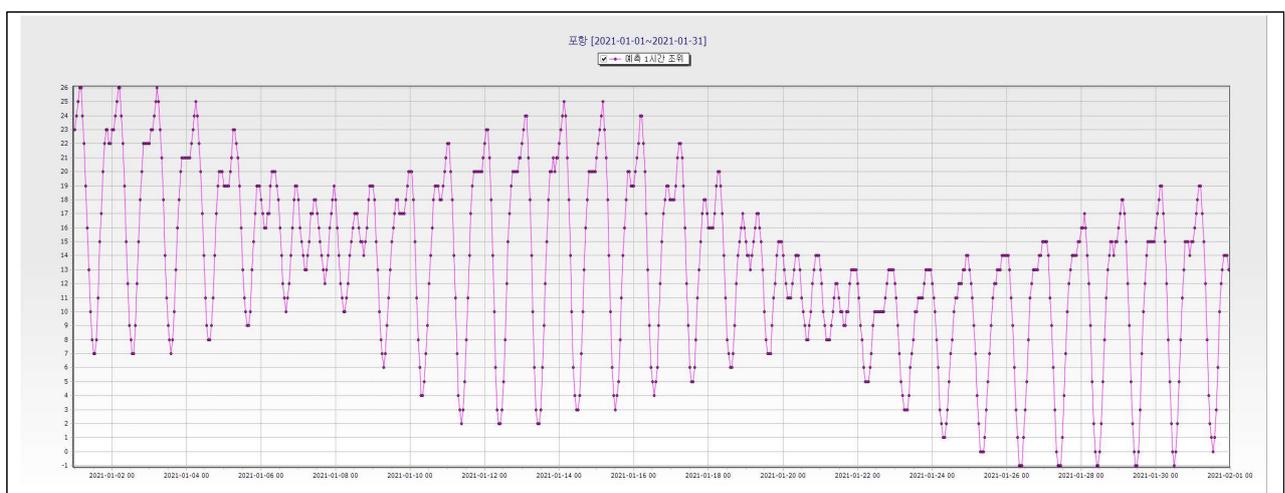
1월 지역별 조위 시계열



< '21년 1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



< '21년 1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



< '21년 1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해양안전정보

해난사고 현황

제공: 해양경찰청

■ 최근 5년간('15~'19년) 해상조난사고 통계

최근 5년간 15,993척(연평균 3,198.6척)의 선박사고가 발생하였고, 발생인원 96,334명 중 495명(사망 322명, 실종 1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구분	발생		구조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계	사망	실종
계	15,993	96,334	15,659	95,839	495	322	173
2019년	3,820	20,422	3,758	20,334	88	58	30
2018년	3,434	19,596	3,385	19,507	89	56	33
2017년	3,160	17,336	3,102	17,228	108	83	25
2016년	2,839	20,145	2,775	20,047	98	48	50
2015년	2,740	18,835	2,639	18,723	112	77	35



< 사고발생 현황 >



< 인명피해 현황 >

☞ 1월 주요 해양사고 사례는 부록2. 참고

■ 해상조난사고 분석

- (총괄) 최근 5년간('15~'19년) 발생한 선박사고 15,993척 중 1월에 발생한 선박사고는 1,043척(6.5%)으로 연 평균 약 208.6척의 사고가 발생
 - * 최근 5년간 1월 인명피해(사망·실종자)는 62명 발생
- (선종별) 어선 66.5%(694척), 레저선박 8.4%(88척), 화물선 6.6%(69척) 순으로 발생
- (유형별) 기관손상 등 단순사고*를 제외하고 충돌 16.7%(174척), 침수 7.0%(73척), 화재 5.9%(62척) 순으로 발생
 - * 기관손상, 추진기손상, 키손상, 운항저해, 부유물감김, 방향상실 등
- (원인별) 사고원인은 정비불량 37.1%(387척) · 운항부주의 36.6%(382척), 관리소홀 9.5%(99척) 순으로 발생

해양사고 예방정보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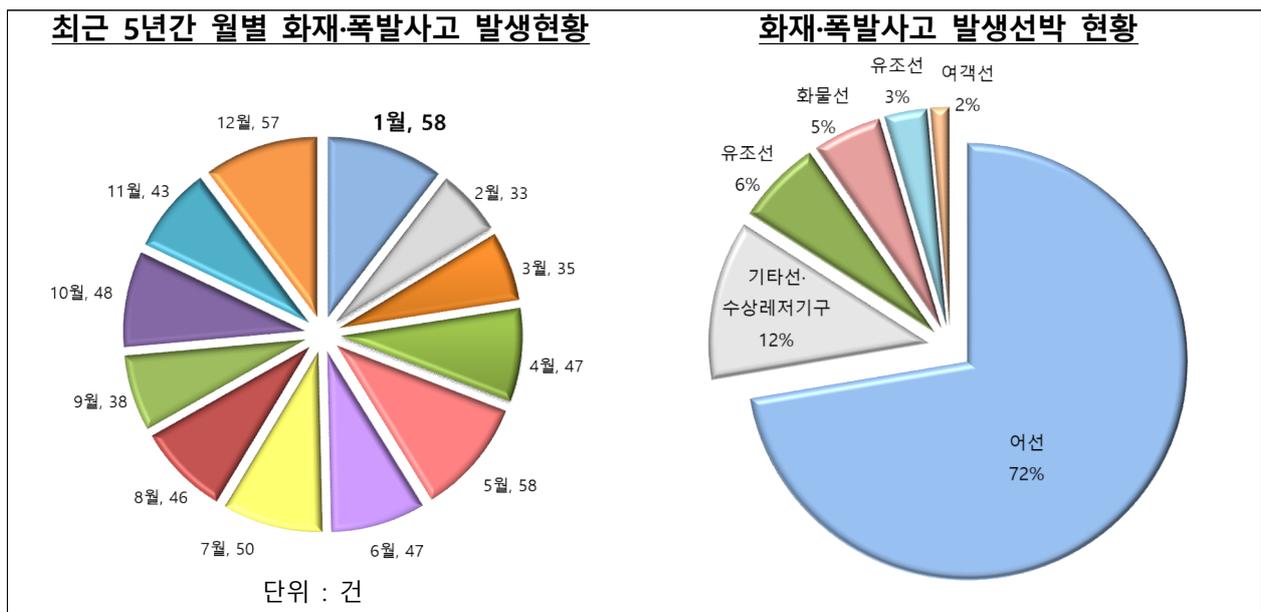
- **[1월] 추운 날씨로 난방기구 등 화기 사용량이 늘어 화재위험이 증가하며 건조한 기후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큰 시기**

유형	기관손상	안전저해	총돌	화재폭발	안전사고	좌초	전복	침몰	해양오염	접촉
건수	248	133	101	58	57	41	14	12	12	9

- 최근 5년간('15~'19년) 1월 중 총 852건(연평균 170건)의 해양사고 발생, 그 중 화재·폭발사고는 58건으로 타월 평균(46건) 대비 2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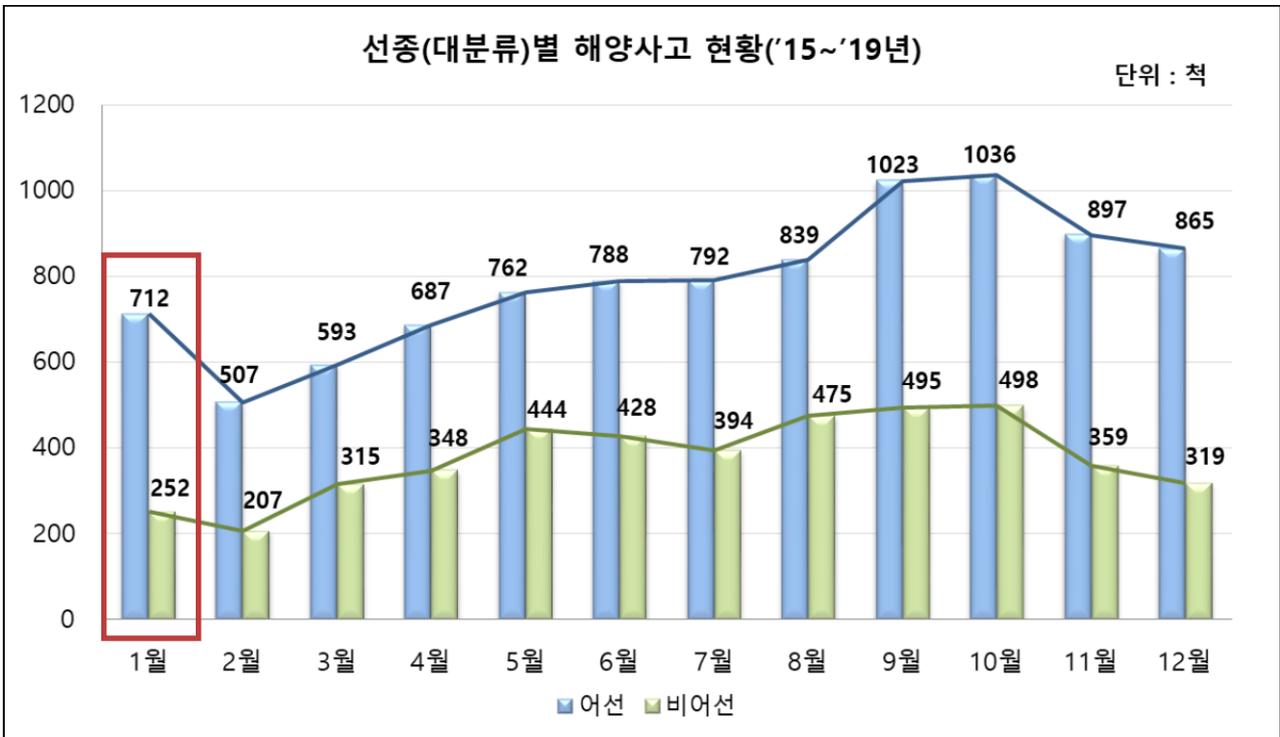
- **화재·폭발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화재 발생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사고피해) 최근 5년간('15~'19년) 1월 중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인해 선박피해 55건(전손 5건, 손상 50건), 인명피해 15명(사망 3명, 부상 12명) 발생
- (주요원인) 단락·누전 등 전기설비 결함, 난방기구 등 화기취급 부주의, 콘센트·멀티탭의 전기사용 과부하 등 전기설비 사용·관리 미흡
- (피해예방) 전기설비 점검 및 화기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기관실 순찰 강화 및 화재경보장치 감시 등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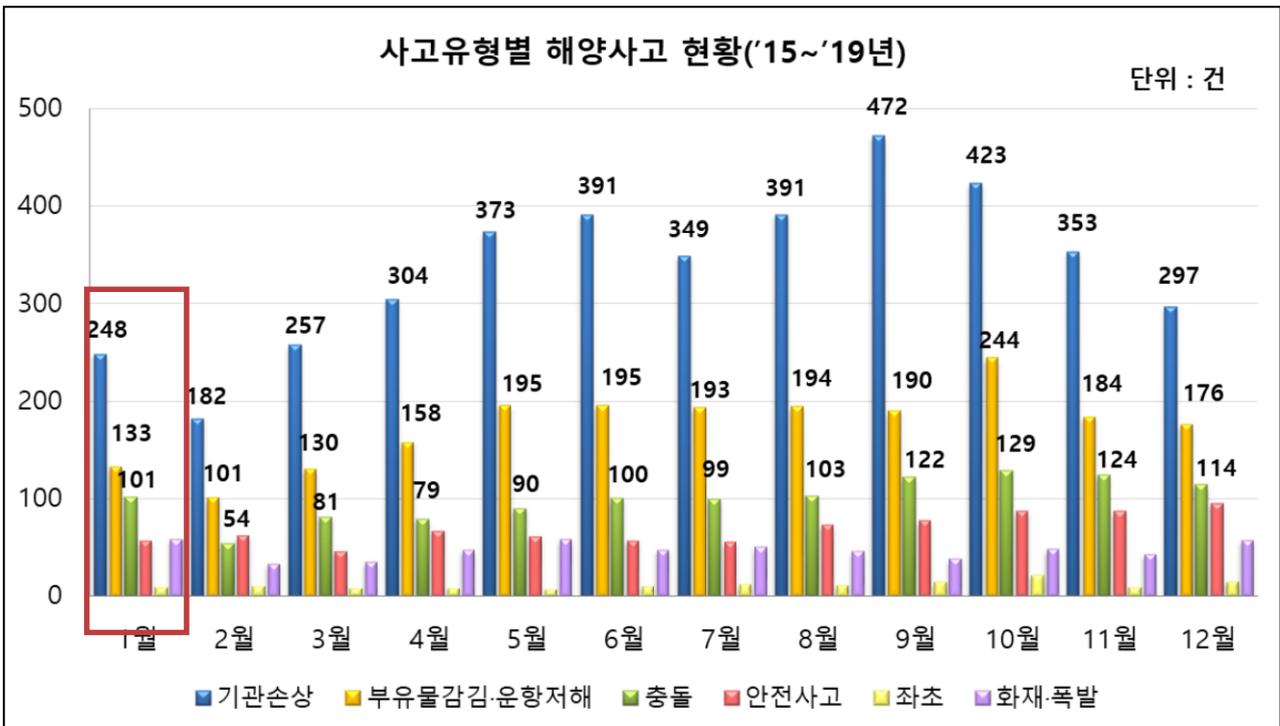


■ 최근 5년간('15~'19년) 월별 해양사고 현황

○ 선종[대분류]별 해양사고 현황



○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 1월 주요 해양사고 사례는 부록2. 참고

어업정보

제공: 국립수산물과학원

■ 1월 어황정보

○ 지난달(12월) 어황

- 12월(월보기간: 11.22~12.19)의 주요 어종별 어황을 살펴보면 갈치와 참조기는 평년비 순조로웠고, 멸치와 전갱이는 평년수준, 고등어, 망치고등어, 살오징어는 평년비 부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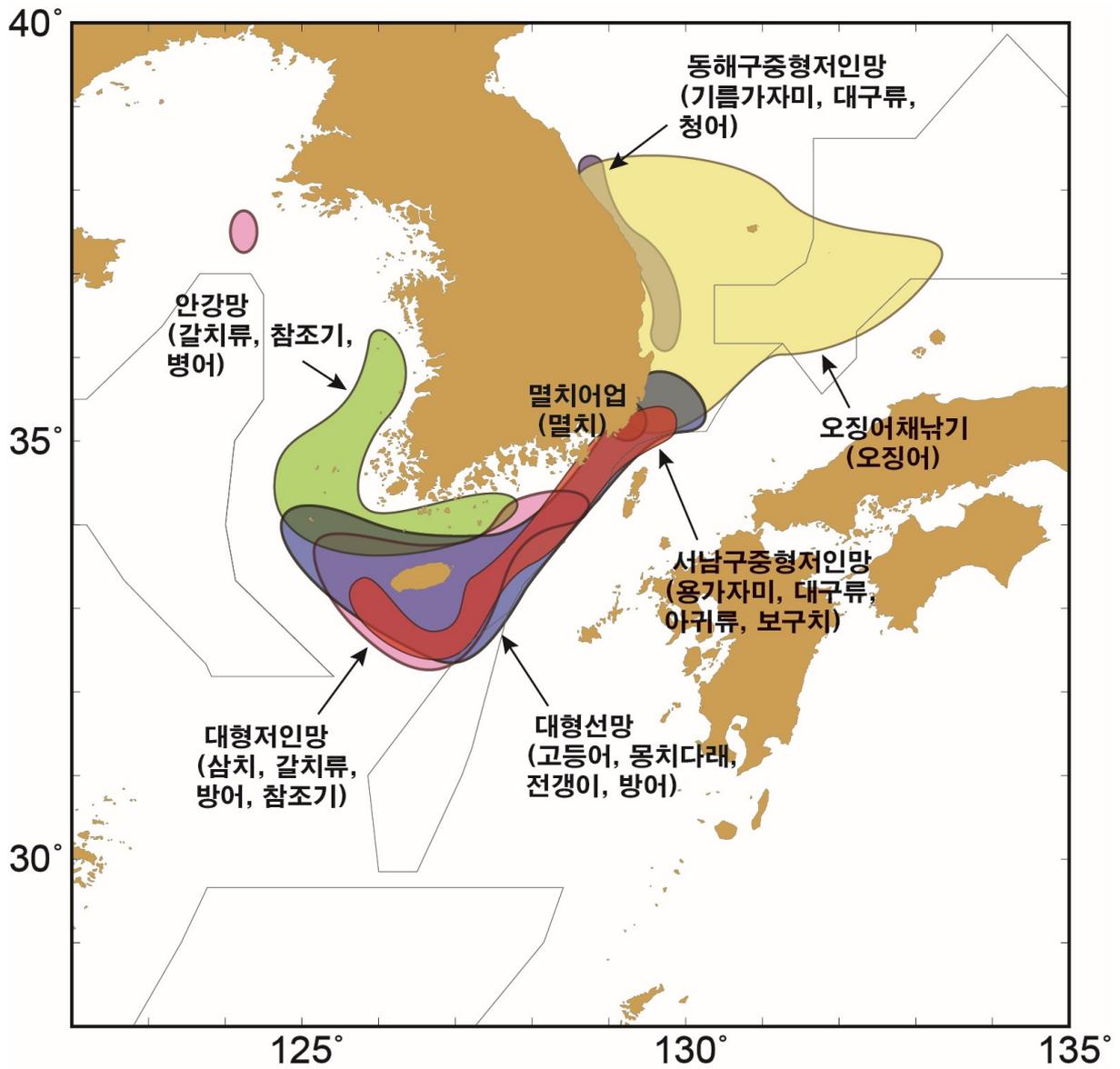
○ 1월 주요 어망별 어황

- 대형선망어업: 고등어, 방어, 몽치다래, 전갱이 등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동해 남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음. 최근 고등어와 망치고등어의 단위노력당어획량은 전년비 감소했으나 평년수준을 회복한 상태이며, 전체 어황은 평년수준의 어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권현망어업: 수온하강에 따라 근해로 이동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남해도와 거제도 주변해역에서 조업을 이어가겠음. 단위노력당어획량은 최근 평년 수준이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 수준으로 전망됨
- 근해안강망어업: 주요 어종들의 남하(월동)회유에 따라 제주 북서부 근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으며, 갈치, 참조기, 병어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겠음. 최근 연조업척수와 단위노력당어획량은 평년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순조로울 전망됨
- 저인망어업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삼치, 갈치, 방어, 참조기 등을 대상으로 제주 서부 근해~남해 중부해역에 걸쳐 조업하겠음
 - 대형외끌이저인망어업: 제주 서부 근해~제주 남부, 남해 중부해역에 걸쳐 조업이 이루어지겠고, 보구치, 갑오징어류, 달고기, 아귀, 민어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음

-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 용가자미류, 대구류, 아귀류, 보구치 등을 대상으로 제주 남서부 근해~부산, 울산 근해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음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강원·경북 근해에서 기름가자미, 대구, 도루묵, 청어를 대상으로 조업하겠음
- 단위노력당어획량은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오징어채낚기어업: 산란을 위해 남하 회유하는 어군이 증가하면서 경북/경남 연·근해를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단위노력당어획량(평년대비 61%)과 연조업척수의 감소(평년대비 90%)로,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이 이어지겠음

○ 주요 어종별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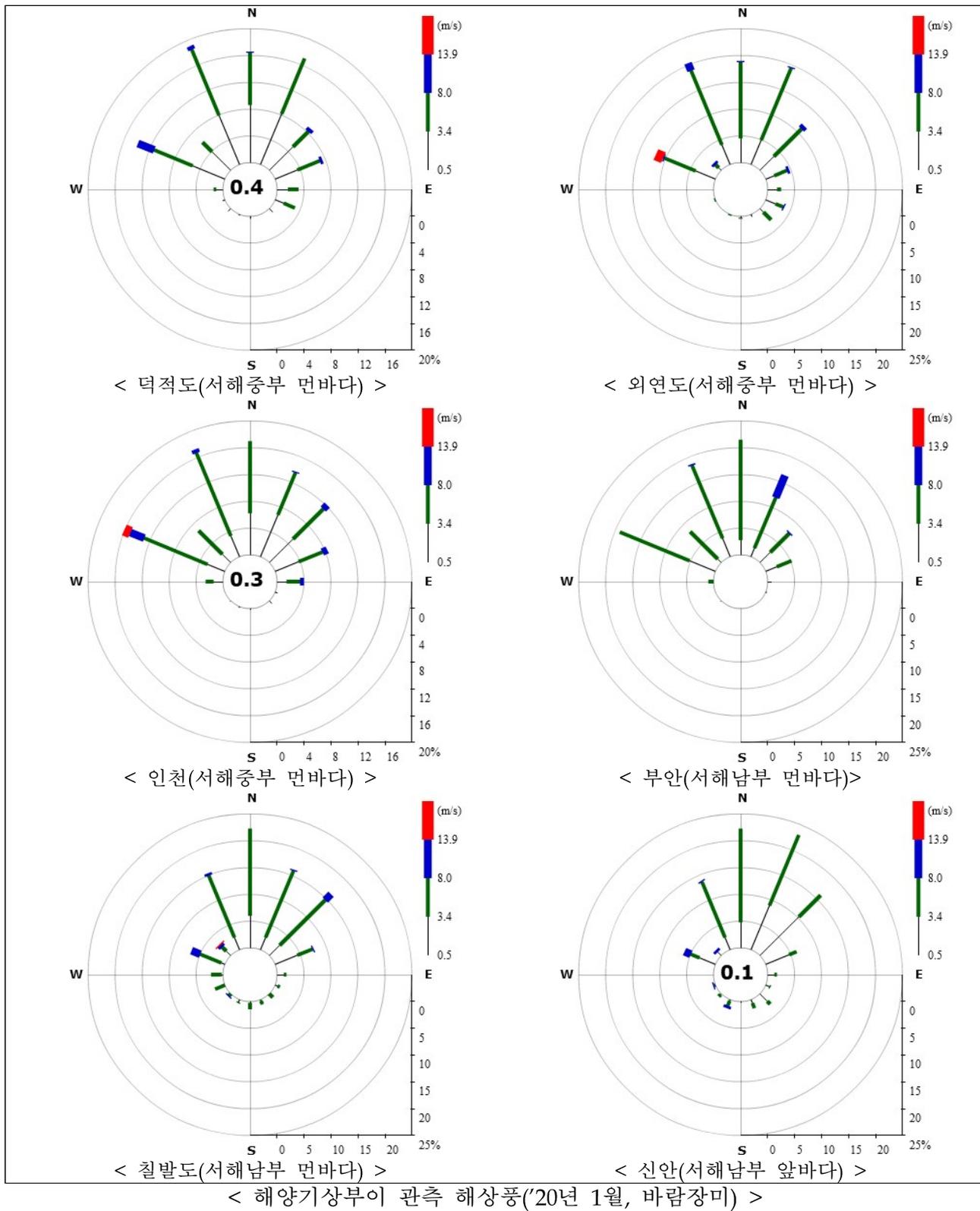
고 등 어	계절적인 수온 하강에 따라 남하회유가 활발하겠고, 동해 남부해역~제주 서부 근해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으나, 중심어장은 제주 주변해역과 동해 남부해역으로 예상된다. 12월에 들어 전반적으로 평년이하의 어황을 기록하고 있으나 어군밀도는 평년 상태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의 어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살오징어	가을산란군에 이어 겨울산란군의 남하회유가 이어지겠고, 산란회유를 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동해 남부해역(경북/울산 근해)을 중심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동해 남부해역의 겨울철 수온 변동성에 따라 어황 또한 큰 변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어군밀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멸 치	겨울철 수온하강에 따라 외해로 이동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남해 중부해역(남해도와 거제도 주변)을 중심으로 권현망어업이 조업을 이어 나가겠으며, 울산~기장 근해에서는 동해 남부해역으로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자망어업이 조업하겠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전망된다.
갈 치	월동을 위해 동중국해로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겠다. 보통 주어를 지나면 전월보다 어획량은 감소하나, 최근 고수온으로 남하회유가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참 조 기	월동을 위해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고, 특히 제주 남서부 근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다. 주어기(9-12월)를 지나면서 전월대비 어획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겠으나,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 갱 이	산란시기(1~4월)이며 동중국해로 남하회유가 활발하겠고, 제주 주변해역과 남해 근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다. 7월 이후 평년대비 순조로운 어황을 이어가다가 겨울철부터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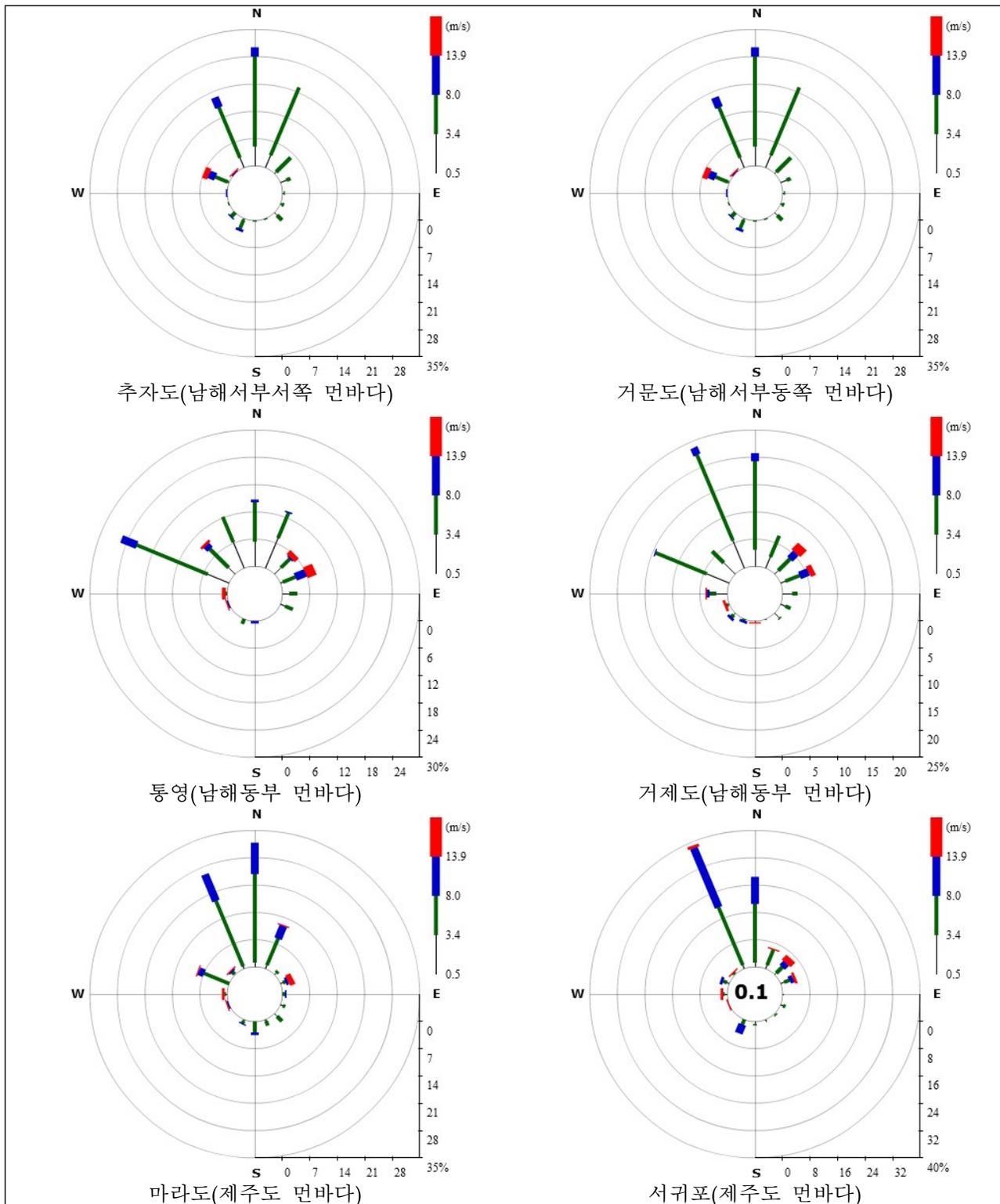
< 2021년 1월 어업별 예상어장도 >

【부록 1】

1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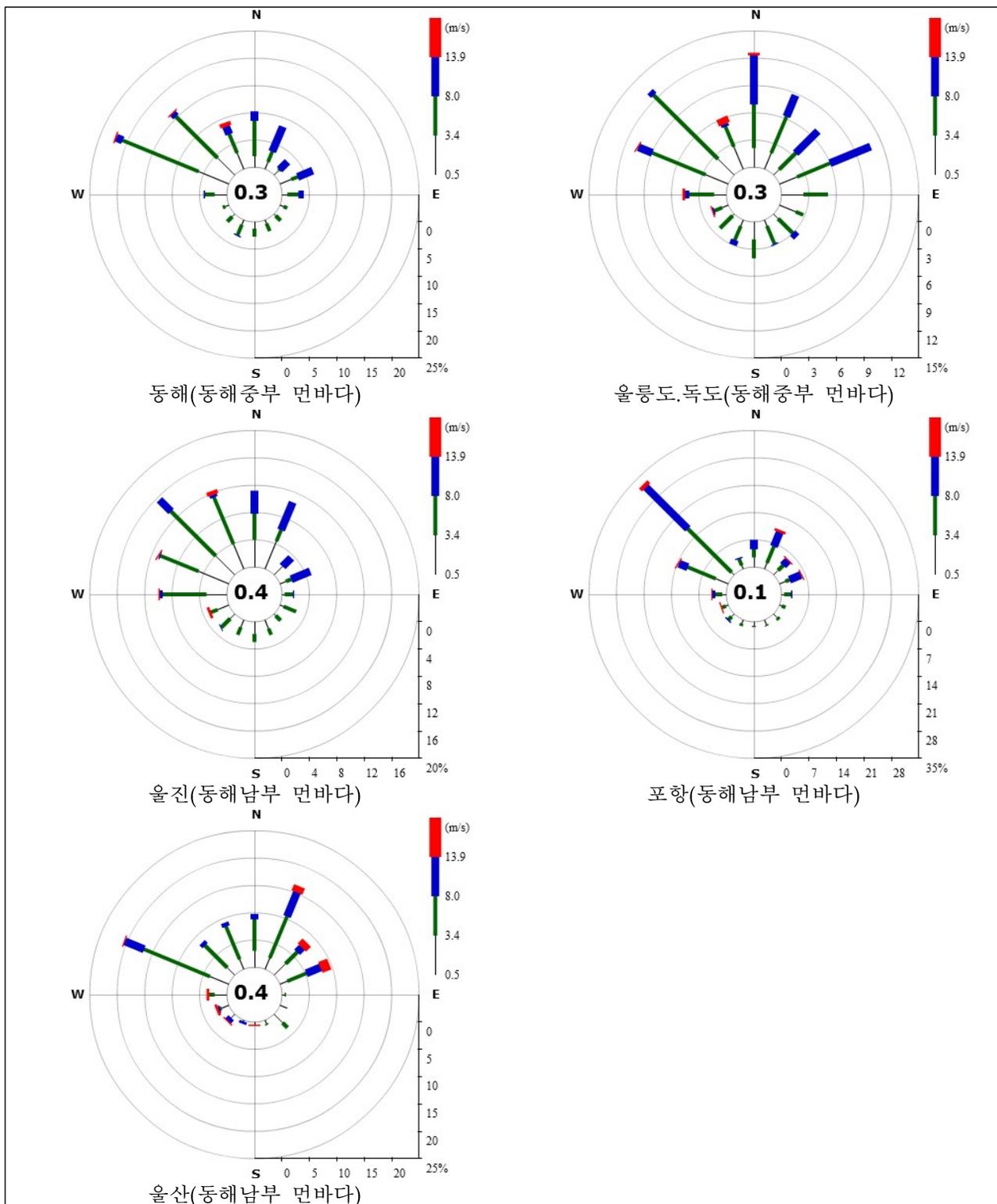


1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남해 · 제주해상)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0년 1월, 바람장미) >

1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동해상)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0년 1월, 바람장미) >

【부록 2】

주요 해양 화재사고 사례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1. 예인선 A호의 피예인부선 B호 화재사건

사건명		예인선 A호의 피예인부선 B호 화재사건
사건개요	선박	A호: 예인선, 155톤, 길이 27.01미터, 강 재질, 디젤기관 2기 B호: 부선, 2,887톤, 길이 87.84미터, 강 재질
	일시	2020. 1. 16. 03:27경
	장소	경남 남해군 미조면 호도 남방 약 0.7마일 해상
	피해	B호 기관실 대부분 소훼
	상황	예인선 A호가 부선 B호를 예인하여 항해하던 중 B호의 기관실에서 화재 발생
날씨	맑은 날씨, 북서풍 초속 6~8m, 파고 약 0.5m, 시정 약 0.5마일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설비 등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보조발전기 모터 후부의 콘센트와 플러그의 접촉이 불량해지면서 해당 부위의 전기 저항이 증가하여 발생한 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출항 전 주요 전기설비 및 전선 연결 단자의 조임 상태나 접촉 불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실 내부의 유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복이나 기름걸레 등 가연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도구를 고온이 발생하는 곳 근처에 두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어선 C호 화재사건

사건명		어선 C호 화재사건
사건개요	선박	C호: 어선, 139톤, 길이 36.40미터, 강 재질, 디젤기관 1기
	일시	2019. 3. 21. 13:50경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항 8부두
	피해	C호 선원식당 및 선원침실 소훼
	상황	부두에 계류 중이던 C호의 선원침실 내에서 화재가 발생
	날씨	흐린 날씨, 북서풍 초속 4~6m, 파고 약 0.5m, 시정 약 1마일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침실 내 난방용 전기장판 등의 전기제품이 다수 연결된 멀티탭의 과부하에 의한 합선으로 화재 발생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함 ○ 선원 침실이나 식당 등에 선원이 없을 때는 수시로 확인하여 전열기 등의 전원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